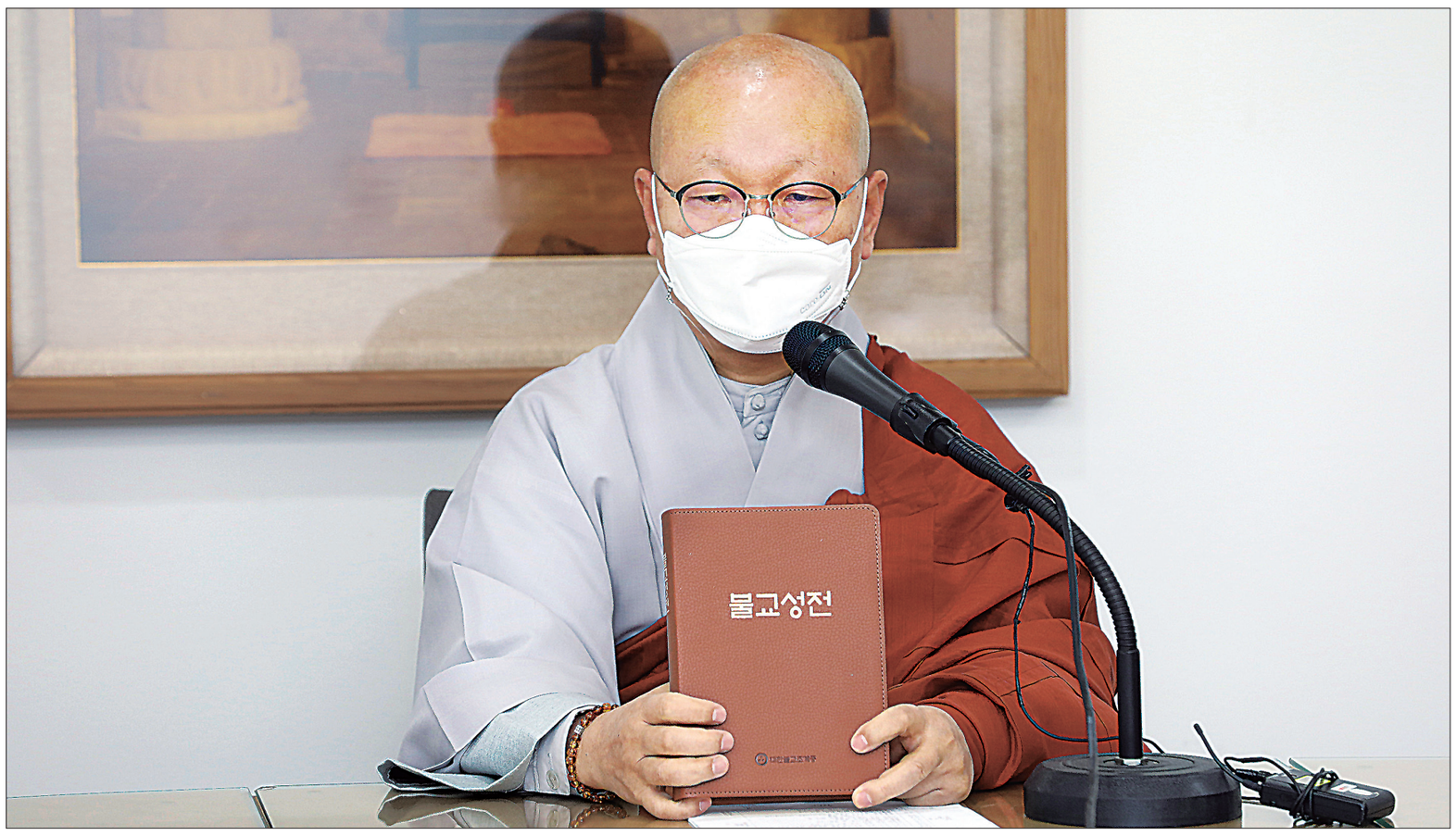
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월 13일)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이것이 조계종 최초 불교성전 조계종 최초의 종단본 〈불교성전〉이 2월 24일 봉정된다. 이에 앞서 2월 17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불교성전편찬추진위 상임위원장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불교성전〉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년 여의 편찬 과정을 거친 〈불교성전〉은 향후 군법당, 병원 등 포교현장을 비롯해 사찰법회, 불교대학 등에서 신행용 ·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첫 〈불교성전〉, 대중 공개 '눈앞'

불교성전편찬추진위, 2월 24일 봉정식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최초 종단본 불교성전이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정되며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조계종 불교성전편찬추진위(추진위원장 원행)는 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24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단본 〈불교성전〉 봉정식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종단본 〈불교성전〉은 1972년 동국역경원에서 불교성전을 발간한 이후 50년 만에 이뤄지는 현대화된 불교성전으로 종단본으로는 처음 출간된다. 조계종에서는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의 필요성에 따라 2018년부터 불교성전편찬추진위 종령을 제장하고, 편찬기금을 모아 발간 작업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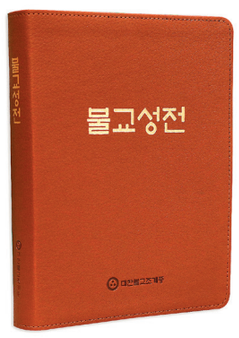
이날 기자회견에는 편찬을 진두지휘한 추진위 상임위원장 지홍 스님(포교원장)이 직접 나서 발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홍 스님은 "7대 포교원 사업계획 중에서 첫 번째가 불교성전 편찬사업이었고, 두 번째가 불교한글의례집 발간이었다.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의 다섯가지 수행을 담은 수행지침서 또한 펴낼 계획을 가졌다. 세가지 사업을 진행한 것은 불교의 핵심요소기 때문이었다"며 "불교성전은 불교의 '법'을 의미한다. 불법을 체계적으로 누구나 읽고 이해하는 통합된 경전이 성전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불교성전 발간을 계기로 수행과 의례에서도 정립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 4장에 부처님 가르침 담아

〈불교성전〉은 대장경의 핵심을 뽑아 모은 책으로 이를 일람해 법문을 발췌하고 다시 검토해 공통분모를 선별했다. 자비, 고 등 키워드 별로 내용을 간추려 체계를 잡았다. 초기경전 · 대승경전 · 선어록 등을 망라하여 특정 주제 안에 여러 불교전통 교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총 4장으로 이뤄진 〈불교성전〉은 1장 '거룩한 부처님'에서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을 서사식으로 구성했다. 1장 이후에는 불교 핵심 가르침에 해당하는 여러 경전 내용을 주제 별로 묶었다. 2장 '위대한 가르침'에서는 무상과 무아 등 불교의 대표적 가르침을 소개한다. 3장 '보살의 길'에서는 믿음과 보시, 계행 등 수행자에게 전하는 말을 모았다. 4장 '불국토 구현'에서는 생명의 소중함, 죽음의 덧없음 등과 재가자의 수행과 출가자의 삶, 부천미 가르침 기준으로 화합하는 중생과 지도자 면면을 다룬다. 성전 뒷부분에 수록된 부록에서는 부처님 당시 인도지도와 4대 성지 모습, 불교사 연표 등도 살펴볼 수 있다.



4장 걸쳐 불교 핵심 담아내
수지독송이 편한 제본 형식
E북 · 증보판 등 개발 필요

법회 교재 활용, 교육용 배포 예정

현재 〈불교성전〉은 1쇄로 4000부 인쇄가 된 상태며, 향후 증보판으로 대중 보급 등이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2년간 대장경에서 뽑은 경전 문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상태로 향후 증보판 등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불교성전〉의 보급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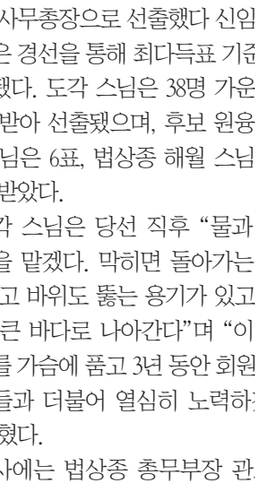
지홍 스님은 "〈불교성전〉이 출간이 되면 법회에서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법회에서 주제별로 신도회각 조직에서 불교성전 낭독모임 등에서 활용가능하다"며 "E북이나 오디오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보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교재로서 활용을 하면서 법회도 불교성전을 가지고 할 수 있기에, 지침서가 2차적으로 나와 배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월 24일 오후 4시 진행되는 불교성전 봉정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표스님들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단 스님 등이 참석한다. 봉정식에서는 경과보고와 봉정, 고불문 낭독, 편찬사 및 발간사 낭독 등이 이뤄진다.

〈불교성전 봉정식 차주 상보〉

종단협 회원 종단들 종교편향 대처 나선다

종단협 18일 올해 첫 이사회서 결의



주요 사업계획 논의 확정
신임 사무총장 도각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가 올해 회원종단에서 발생하는 종교편향 및 훼불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또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를 올 10월 양산 통도사 등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주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종단협은 2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축년 제1차 이사회 및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체 임원 39명 중 38명 출석, 불참 1명으로 성원됐으며, 사무총장 선출의 건을 비롯해 임원 변경의 건과 2020년 결산 및 사업결과 보고, 올해 사업계획 승인 등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회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더 노력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루빨리 극복하고 종단 본연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단협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종교편향과 관련한 회원종단 공동 대응의 건을 논의하고 사안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키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차별금지법 수정법안 논란과 남양주 수진사 기독교인 방화사건, 연예인들의 개인 신앙표현 등 직 · 간접적인 종교편향 및 훼불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협회 및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및 항의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회원종단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종단협은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1단계 단발성 · 경미한 사안, 2단계 훼불사건 및 공공시설 편향 및 조직적 사안, 3단계 중대한 편향 및 훼불사건 등으로 단계별로 분류하고 사무처 대응, 회장단 종단 연대, 이사회 소집 등으로 단계별 논의 구조를 확정했다.

올해 예정된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 개최와 관련해 장소 및 일정도 다뤘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는 애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로 연기됐다. 종단협은 한국대회 개최를 위한 한중일 예비회의 등을 서면 및 온라인으로 대체키로 하고 이를 사무처에 위임했다. 또 본대회는 양산 통도사와 부산지역에서 10월경 개최되며 평화기원법회와 '세계일화'를 주제로 한 학술강연회, 공동선언문 발표 등으로 이뤄진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민 스님(삼론종 총무원장)의 후임으로 도각 스님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사무총장은 경선을 통해 최다득표 기준으로 확정됐다. 도각 스님은 38명 가운데 21표를 받아 선출됐으며, 후보 원융종 진호 스님은 6표, 법상종 해월 스님은 11표를 받았다.

도각 스님은 당선 직후 "물과 같이 소임을 맡겠다.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가 있고 바위도 뚫는 용기가 있고 결국에는 큰 바다로 나아간다"며 "이 같은 진리를 가슴에 품고 3년 동안 회원 종단 스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법상종 총무부장 관보 스님, 법륜종 총무부장 진명 스님, 정토종 감찰부장 지공 스님이 임명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첫 안건으로 임원 변경의 건이 다뤄졌다. 최근 법화종 총무원장에 당선된 거암 스님의 종단협 이사 자격에 대한 것으로,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이 종단협 사무처에 거암 스님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시까지 이사 임명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논의됐다. 이에 대해 거암 스님은 자격 논란에 대한 해명 공문을 발송했으며, 종단협은 종단 내부 분규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거암 스님을 일단 이사로 선임한 후 판결에 따라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